

#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일시 2013년 7월 4일(목) 13시 ~ 5일(금) 12시

장소 수유 아카데미 하우스





# CONTENTS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 프로그램	05
▪ 환영사 : 송월주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07
▪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활성화 : 함께일하는재단이 드리는 글	13
▪ 협동사회경제의 지역화·협력화를 위한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드리는 글	15
▪ 초청강연 : 김기섭 박사(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깨어나라 협동조합' 저자)	21
▪ 지역사례발표 1 수원 :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장)	32
▪ 지역사례발표 2 충남 : 박찬무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SE(주)즐거운 밥상)	38
▪ 참가자 등록 양식	49
▪ 분임토론 양식	52
▪ 워크숍 평가설문 양식	53
▪ 사전질문 분석결과	55



# PROGRAM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일자	시간	내용
첫째날 7월 4일(목)	13:00 ~ 13:30	○ 접수
	13:30 ~ 14:00	○ 환영사 및 내외빈 소개 - 송월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14:00 ~ 14:30	○ 지역네트워크 이해
	14:30 ~ 16:15	○ 초청강연 : “지역을 살리는 협동사회경제의 나가야 할 길” 강연 : 김기섭 (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깨어나라 협동조합’ 저자) ○ 지역사례 발표 1 : 수원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장) ○ 지역사례 발표 2 : 충남 박찬무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SE(주)즐거운 밥상
	16:15 ~ 16:25	○ 휴식
	16:25 ~ 16:50	○ 발표토론 (강연 및 지역사례 발표)
	16:50 ~ 17:00	○ 휴식 및 이동
	17:00 ~ 17:50	○ 소통의 시간 - 아이스 브레이킹
	17:50 ~ 19:00	○ 분임토론
	19:00 ~ 21:00	○ 나눔의 자리
21:00 ~ 23:00	○ 토론정리	
둘째날 7월 5일(금)	08:00 ~ 09:00	○ 아침 식사
	09:00 ~ 11:00	○ 종합토론 - 분임토론 결과 발표
	11:00 ~ 12:00	○ 발표정리 및 마무리 - 지역네트워크 향후일정 소개
	12:00 ~ 13:00	○ 점심 식사 및 해산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 환영사

송월주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송월주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워크숍은 최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협동사회경제 부문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서 주목되는 상황에서,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우리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사회현장의 활동가들이 직접 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그동안 실업과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약 7,000여개의 협동사회경제 관련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대표되는 협동사회경제는 “협동”이 가지는 의미와 같이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복지 창출을 위한 매개체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협동사회경제는 지역에 기반할 때 가장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역화”와 “협력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재단과 지역과의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지역사회 활동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워크숍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생각과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네트워크, 오늘 워크숍이 우리 사회의 협동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3. 7. 4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송월주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

## 지역네트워크 이해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협동사회경제의 지역화·협력화를 위한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함께일하는재단이 드리는 글

###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1998년 실업극복을 사명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로 출범하여,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3년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을 거쳐 2008년 ‘(재)함께일하는재단’으로 거듭 변모해 왔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미션으로 하여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자리매김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함께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여전히 실업과 사회양극화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실업과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사회경제가 주목받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나”보다는 “우리”로 시야를 넓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현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이러한 협동사회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최근 이의 건강한 자리매김에 기여하기 위해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동사회경제는 사람과 지역에 밀착하여 자리매김 되어야 보다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역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일하는재단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협동사회경제의 주체인 지역사회와 만나 지역의 협동사회경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의 협동사회경제의 활동가들과 함께 그 방안들을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마침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해 “협동사회경제의 지역화·협력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네트워크, 그리고 이번 워크숍이 우리 사회의 협동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함께일하는재단

※ 본 워크숍은 협동사회경제를 위해 지역과 재단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서, 워크숍의 결과는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에서 취합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협동사회경제의 지역화·협력화를 위한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드리는 글**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은 지난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국내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현장성을 기초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의 자발적·실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협동사회경제를 화두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도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은 실업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활동 영역을 협동사회경제 영역으로 확대하고, 협동사회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불과 5년만에 2,500여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설립(예비사회적기업 포함)되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반년만에 협동조합의 설립건수가 1,200여개에 이르는 등 협동사회경제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협동사회경제는 “협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본질로 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산물인 실업과 사회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사회경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생적 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는바, 건강한 협동사회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사회경제의 건강한 자리매김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왔습니다. 그리고 협동사회경제 영역이 지역사회 현장에 기반하도록 하는 “지역화”와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지역간, 부문간, 주체간 “협력화”를 목표로 한 지역네트워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진경과 참조)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는 협동사회경제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진정 지역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현 사회환경에서 지역에서의 협동사회경제가 갖는 의의는 무엇이며, 협동사회경제의 지역화·협력화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재단과 지역의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는 7월 4~5일 지역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워크숍이 향후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의 기반을 조성해감에 있어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은 우리 사회에 협동사회경제가 건강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지역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 6.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	서성원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위원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위원	박종효 (사)일하는공동체 대표
	위원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
	위원	정덕용 부산연제자활센터장

이상 가나다 순



〈지역네트워크 추진경과〉

<p>○ 2012. 12. 11.</p>	<p>“협동사회경제 시대에 있어 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지역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논의)                  - 전국 지역활동가 14명 참석[백미선(서울), 이상호(수원), 심옥빈(인천), 김선기(원주), 최우현(강릉), 박종효(충북), 서성원(전주), 육이수(전주), 임탁균(익산), 주종섭(여수), 정향자(광주), 소지훈(양산), 정덕용(부산), 강종우(제주) 등] *직책명 생략</p>
<p>○ 2013. 2. 14.</p>	<p>“함께일하는재단과 지역사회와의 구체적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지역간, 부문간, 주체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논의; 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회(김선기, 박종효, 서성원, 이상호, 정덕용 등 위원 5명 선임)</p>
<p>○ 2013. 3. 15.</p>	<p>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개최(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결정;                  준비위원장에 서성원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선임)</p>
<p>○ 2013. 4. 17.</p>	<p>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개최(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준비 논의;                  지역네트워크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p>
<p>○ 2013. 5. 24.</p>	<p>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개최(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일정 등 구체적 준비사항 논의)</p>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 초청강연

지역을 살리는 협동사회경제의 나아가야 할 길

김기섭 (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깨어나라 협동조합' 저자)

## 지역사례발표

수원사례 :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장)

충남사례 : 박찬무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SE(주)즐거운밥상 대표)



초청강연

## 지역을 살리는 협동사회경제의 나아갈 길

김기섭 박사

(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깨어나라 협동조합 저자)

### 1. 들어가기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이니 ‘지역’이니, ‘사회적 경제’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말들입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소곤소곤 이야기했던 말들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듣게 되어 고맙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왠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전 한 공부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여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는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편으론 반갑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그분들이 왜 갑자기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몇 분들과 마주앉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활용할 태세고, 그 마을만들기의 도구로 협동조합을 강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제는 마을과 협동조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일들이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무엇이었는지를 자괴감 속에서 되뇌어야 하는 젊고 열심인 그분들 앞에서, 저는 변화한 시대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길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길이란 본래 사람들이 가는 과정에서 닦이는 것이지 자로 긁듯이 길을 내는 신작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낸 신작로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시하고 또 그 과정에 사람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중시하지 않고서는, 개발독재시대의 신작로가 사람은 없고 차만 다니는 난폭한 길이 되어 버렸듯, 협동사회의 마을에도 사람은 없고 기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을’이니 ‘지역’이니, ‘사회적 경제’니 ‘협동조합’이니 다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을과 지역이고, ‘어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인지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이지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이라는 형용사가 빠진 마을과 지역,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강압이고 폭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역’이고, 둘은 ‘협동사회경제’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두 가지 명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은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지역이고 어떤 협동사회경제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지역’에 대해

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역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바를 그림으로 그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을 그리셨습니까?

제가 그린 지역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이 사는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실이 있고, 그 옆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통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통에 바지 허리를 수선하기 위해 자주 가는 세탁소, 가끔 장 보러 찾는 생협이 매장, 등등이 있습니다. 좀더 반경을 넓혀보면 운동 삼아 가끔 들르는 마을의 공원, 피곤할 때 자주 찾는 목욕탕, 어찌다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제가 그린 지역과 마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실은 제 그림 안에는 사람은 없고 온통 구조물들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는 그림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엉터리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엉터리이긴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지역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상 우리 현실에서 지역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기물투성이입니다.

지역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역(region)이란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local)이 아니며, 따라서 그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란, 한마디로 각자의 생활과 관련된 순환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제각각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생활과정의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지역입니다.

위에서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에 사람은 없고 온통 구조물뿐이며, 제 일터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저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고, 또 제 생활과정에서 생산과 생활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을 살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살린다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저처럼 엉터리 그림을 지역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에게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과 어우러진 생산과 생활의 살아있는 모습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을을 그려보라 하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다가, 아마도 곧 이어 엄마와 친구와 이웃집 아줌마와 자주 가는 가게 주인을 잔뜩 그려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려내야 할 지역의 모습입니다.

지역이란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순환하는 곳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일체의 우리네 삶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서 순환하는 범위, 그것이 바로 지역이고 마을이며 사회적 경제가 이야기하는 ‘사회’이고 협동조합에서 말하는 ‘협동체’입니다.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과 순환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런 지역이 일률적이거나 닫힌 것이 아니라 중층적이고 확장적이며 동시에 다차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산과 생활의 순환은 그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순환의 공간적 범위가 달라집니다. 먹을거리의 순환 범위가 다르고, 교육의 순환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먹을거리라도 채소가 다르고 과일이 다르고 가공식품이 다르며, 나아가 먹을거리의 순환과 관계되는 또 다른 요소들 - 가령 정보나 화폐와 같은 - 즉 순환의 대상이 순환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들의 순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관계성이 다각화되고 생활의 범위가 확대되듯이, 인간과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과정과 그 공간적 범위인 지역 역시도 중층적이고 확장적이며 다차원적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우리의 노력 또한 중층적

이고 확장적이며 다차원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가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문제의 연장상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한마디로 제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순환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런 순환은 관계성의 다각화와 생활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중층적이고 확장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열려갑니다. 순환을 무시하고 공간을 무작정 확장해서는 지역이 사라지고, 지역을 일률적으로 닫아둬서는 지역 살리는 일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 3. ‘협동사회경제’에 대해

두 번째 주제인 ‘협동사회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언어는 의식의 발현이고, 의식은 경험의 소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어는 의식을 규정하고, 그 의식에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언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 하고, 이렇게 새로이 해석된 언어가 어떤 의식과 행동을 낳을지에 대해 사려 깊어야 합니다.

오늘의 워크숍 주제가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쓰인 모든 말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령 협동사회경제란 말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오해를 불러오기 십상인 개념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협동에 의한 사회의 - 혹은 사회적인 - 경제’를 줄여서 ‘협동사회경제’로 부르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social economy through cooperation with people’와 ‘co-socio-economy’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협동에 의한 사회의 경제’라 했을 때, ‘협동’은 방식이고 ‘사회’는 가치이며 ‘경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동사회경제’라고 세 가지 명사를 동위로 나열하는 순간, 우리의 의식에서는 방식과 가치와 행위의 구분이 사라지고, 방식과 가치와 행위의 주체도 생략되며, 나아가 그런 주체의 행위를 협동사회경제라는 ‘체제’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마치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주제에서 협동사회경제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보이듯이 말입니다.

언어의 축약은 상상력을 발휘시킬 때는 득이 되지만, 그것이 본래의 취지를 잊거나 곡해



시킬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시장의 경제>가 <시장경제>가 되고 <국가의 경제>가 <국가경제>가 되었듯이, <사회의 경제>가 <사회경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거래가 약속강식으로 변질되고 협치가 통치로 변질되었듯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이 개개인의 자율성을 오히려 무너트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사람보다는 시스템, 개체보다는 군집, 관계나 생성보다는 존재나 실체가 먼저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 (1) '협동'에 대해

앞에서 저는 각자가 사는 마을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그림에서는 사람은 안 보이고 구조물과 시설로 가득찼지만, 그림에도 그 마을은 저를 중심에 두고 점차 확장됩니다. 제가 만약 그림 안에 사람을 그렸다 치면, 아마도 어찌다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나 세탁소 아저씨, 생협 매장의 지킴이 아주머니를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경비원, 세탁소 주인, 생협 매장 지킴이라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무뚝뚝한 경비원 아저씨, 제 살 빠지는 걸 걱정해주는 세탁소 아저씨, 생협의 전직 실무책임자였던 것이 들키면 어찌나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생협 아줌마로 그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모습과 관계는 이렇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삶을 바라보며, 그 삶과 관련된 사람들을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계로서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일을 의도적이고 운동적으로 할 때만 되면 개체보다는 전체를, 관계보다는 실체를 먼저 사고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고한 전체와 실체를 향해 개체와 이런 개체간의 관계를 종속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사람을 세우지도, 사람 간의 관계를 복원하지도, 그 관계의 순환하는 공간적 범위인 지역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지역을 살리는 주체가 사람이고, 지역을 살리는 방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동을 통해서이며, 이런 협동의 관계망이 사회를 형성한다는 데 우리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우리 안에서 먼저 협동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협동!

그것의 본질은, 누구로부터도 강요받지 않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의 관계이고 연대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의 자유와 자립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의 출발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필요 때문이 아

닌 오로지 나와 너의 필요와 희망을 담아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의 성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들러붙음이 아니라 거리를 두면서도 존경을 담아 서로를 어여뵈여기는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의 성공은, 지켜야 하는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계약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도달합니다. 그것의 완성은, 협동의 당사자들을 넘어 더 가난하고 더 쓸쓸한 이웃과 다음 세대와 못 생명을 향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무릇 생명이란 앞으로 이어져 나감으로써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지속되고 확장되니, 진보함으로써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함으로써 진보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사회’에 대해

‘협동’은 방식이고, ‘사회’는 가치이며, ‘경제’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가 가치이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협동해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협동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사회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이 말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인 것은, 사회를 실체이고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회 안에서 협동해왔다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가 있고나서 협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실은 인간의 협동 관계 자체이며, 협동 관계가 만들어놓은 일종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회란 social이면서 동시에 society입니다. social은 인간의 협동 관계이고, society는 그런 협동 관계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사회주의는 socialism이지 societism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조합’도 영어로는 society 즉 사회이지만, 이 때의 조합은 조합원의 협동 과정이 만들어낸 일종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회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이런 사실이 보다 확연해집니다. 사회의 사(社)나 회(會)는 모두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社)는 대지 [土] 의 신에게 제사 [示] 지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회(會)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쌀을 찌서 밥을 해먹는데 이 때에 쌀 찌는 시루 [甬] 와 그 뚜껑 [𠂇] 이 합치듯이 신분의 구분 없이 상하가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의 두 한자를 결합해서 19세기 중반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회’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사회’는 새로운 종교 단체나 종파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신념체계를 믿는 그들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별종들이지만 그 안에서는 기존의 신분 질서와는 다른 평등과 일체감, 긴밀한 우애와 연대를 지녔습니다.

우리가 사는 전체 사회는 사실은 그 안에 다양한 부분 사회가 있으므로 해서 존재하고, 또 다양한 부분 사회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참여한 사람들 간의 협동 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물론 사회가 인간을 어느 정도 질서화, 조직화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서 모임을 만들지만 그 모임에 의해 나 스스로가 규제받거나 동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화란 바로 이런 개개인을 향한 사회의 조직화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갑니다.

하지만 사회화 즉 사회의 조직화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조직화 즉 자기조직화입니다. 자기조직화는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발현해가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혈연이나 지연, 혹은 정치적이거나 관습적인 강요에 의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율적인 협동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조합이고 사회입니다. 사회는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거나 실체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동하는 관계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타자와 관계하기 위해 나아가는 지향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 (3) ‘경제’에 대해

‘협동’은 방식이고, ‘사회’는 가치이며, ‘경제’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가 행위이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얻거나 자연을 변형 가공해서 소비하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생산→소비→분해→생산→...> 이라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통해 생존해갑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라 합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안에는, 그보다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가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분화, 생산과 생산의 분업이 심화되면서,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는 인간의 삶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

리가 말하는 경제란 바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 대사입니다. 쉬운 우리말로 하면 경제란 바로 거래인 셈입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 즉 거래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의 거래처럼 호혜적인 <공동체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상호부조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구속적입니다. 다음에 국가가 세금을 계속 걷기 위해 걷은 세금의 일부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국가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구속되고 착취당하지만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폐를 매개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화폐를 가진 자가 유리한 계약이고, 그 과정에서 잉여가치의 착취와 빈부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고대사회는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의 거래가 경제행위의 중심이었습니다. 봉건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각각의 거래가 주류를 형성하는 국가, 도시 그리고 농업공동체라는 세 영역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봉건사회의 각기 다른 세 경제영역은 근대사회에 들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통일된 국내 시장으로 편입되었고, 이는 다시 국가의 울타리를 넘는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장의 경제>가 <국가의 경제>나 <공동체의 경제>와 병행해서 도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활동해왔던 것이, 지금은 국가적이고 다시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국가와 공동체의 경제마저도 종속시키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경제>가 국가와 공동체의 경제로부터 빠져나와 <시장경제>가 되고,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의 경제마저도 지배하는 <시장사회>로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아무런 대안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실은 인류가 알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 즉 거래의 유형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되어가던 상황에서, 인류의 위대한 선구자들은 위 세 가지 거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래 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거래>이고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상호부조적이지만 <공동체의 경제>와는 달리 자유롭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시장의 경제>에 서처럼 자본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착취와 빈부의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니다. 따라서 그것은 재분배에 의해 부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국가의 경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경제 즉 거래(去來)란, 말 뜻 그대로 ‘가고 오는 것’입니다. 돈이 가고 오고, 물건이 가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도 가고 옵니다. 사람이 가고 오며 따라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물건과 서비스가 가고 오며, 그런 물건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책정해서 돈이 가고 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래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회란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만남입니다. 거래란 한마디로 물건(서비스)과 물건(서비스), 그리고 그런 물건(서비스)과 물건(서비스)을 연결하는 돈과 돈 사이의 관계이고 만남입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돈의 관계에 의해 물건의 관계가, 그리고 물건의 관계에 의해 사람의 관계가 지배받는 사회입니다. 사회적 경제란 이런 사회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관계를 〈시장사회〉에서 〈사회시장〉으로 되돌려놓는 것이고, 돈과 물건의 관계에 의해 사람의 관계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기초해서 돈과 물건을 관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 4. 맺음말

오늘 저는 ‘지역’과 ‘협동사회경제’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 ‘협동사회경제’는 ‘지역’을 무대로 다양한 생활과정에서 기존의 지역과는 다른 제2의 지역을 창조해가는 운동입니다. 협동사회경제가 펼치는 제2지역은, 엄연히 기존의 제1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제1지역을 변화 극복시켜간다는 의미에서 제1지역 밖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밖을 지향하고, 밖을 지향하면서도 끊임없이 안에 있으려 하는 운동 과정이 바로 협동사회경제가 펼치는 지역 살리기인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의 기존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로 향하게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그런 관계가 다시 개개의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는 협동사회경제의 주체들, 기존의 국가와 시장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도 의식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협동사회경제의 주체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서 지역 밖에다 섬을 만들어가지 않는, 국가나 시장을 단순히 보완하지 않는 협동사회경제가 지역 안에서 움틀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동사회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운동은 항상 주체화, 자기조직화, 사업화(정치화), 탈사업

화(탈정치화)라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한 자기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하며, 그것이 조직이나 기구나 사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러난 조직이나 기구나 사업이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협동사회경제 진영의 앞으로의 생명줄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체화, 자기조직화, 사업화, 탈사업화 가운데 사업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사업에 대해 등한시하거나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사업화시켜내지 못하는 운동은 아무리 좋은 뜻과 지향을 가진 것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협운동을 시작한 초창기에 수년간 마늘만 까왔고,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 수개월간 커피나 볶고 홍차나 가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업화의 길은 자기조직화하는 주체의 필요와 그 필요를 이뤄가는 구체적인 영역에 따라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탈사업화와 다시 주체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공적 사업화는, 협동사회경제의 탈을 쓴 시장경제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고 ‘어떤’ 협동사회경제인지를 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협동사회경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경제를 형성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자본이나 권력 등과 같은 무기적 성격의 것이 지배하는 경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유기적인데 그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더 유기적이겠습니까? 사회적 경제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간에 다양한 관계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항상 밖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사회경제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애로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살아 있다는 것이죠. 견잡을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쁨을 가져다 줬던 것이 노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없는 슬픔으로 왔다가도 어느새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돌변합니다. 살아 있음으로 해서 그 안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주는 법입니다.

일전에 라다크의 오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승(醫僧)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쓸쓸함에 고혈압을 앓는 한 노인을 치유하며 그가 말합니다. “병은 살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병에 걸릴 일도 없죠. 살아 있음에 감사하듯이, 병에 감사해야 해요.”

노여움과 슬픔은 살아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노여움과 슬픔을 없애려고 자본이나 권력과 같은 무기적인 것에 사람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협동사회경제에 희로애락이 있는 것은, 협동사회경제가 협동사회경제임을 반증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정 스님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죽음이 ‘천화(遷化)’라고 합니다. 약초꾼도 다니지 않는 험준산령에서 중이 길을 가다 더 이상 갈 기력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나마 조금 남은 기력으로 마른 나뭇잎 긁어모아 그 위에 몸을 뒤어 이승과 작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죽음입니다. 협동사회경제의 길 위에서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돼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살다가 갈 생각만 있다면 무슨 희로애락이 따로 있겠습니까? 길이란 가는데 의미가 있고, 삶이란 살아있다는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주제 넘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례발표 1 : 수원

## 수원지역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수원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  
이상호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1.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 경제 운동의 시작

▣ 1997년 imf 사태의 시기인 12월 수원지역 실업대책위 건설

- 1차 시기 : 97년~98년 쌀 모금 운동

- 실업대책위 9개 시민,사회 참여단체 중 노동, 청년, 여성단체가 실대위 주축이 되어 활동
- 약 3개월 가량 가가호호방문(주말)을 통해 1되박 모금운동
- 1998년 4월 쌀 200가마(40kg기준) 모금 목표 달성
- 1998년 5월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에 쌀 배달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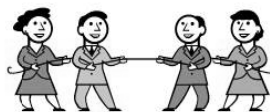
- 2차 시기 : 98년~99년 무료공부방 설립
- . 98년 쌀모금 발원지인 권선구 고등동에 1호 공부방 설립
- . 99년 장안구 송죽동에 2호 공부방 설립(현재 7호까지 확대)
- . 공부방 후원회 조직
- .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무료급식
- 99년 경기복지시민연대 창립 등 시민단체의 복지공동체 사업참여



3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 2000년 실대위 해소, 실업극복 수원센터로 전환
- 3차 시기 : 2000년~ 2003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건설
- . 수원센터가 '국민운동' 경기남부지역 대표단체로 선정
- .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의 긴급구호 사업 (남부권 800가정)
- . 실업상담, 기초생활 수급법 상담, 취업알선 상담 사업
-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 대표단체로 활동
- 2000년 수원지역 자활센터 3곳 지정



4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 '국민운동 해산'-'함께 재단 창립' : 지역실업단체와의 결별

- 4차 시기 : 2003년~ 2006년 노동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 .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의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 시민,종교,사회단체의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확산
- . 자활센터의 성장기를 통해 자활공동체 확장
- . 실업전문기관의 독점적 지위약화 : 생존의 시기
- ☞ 다양한 실업사업-자활기업-장애,노인 공동체 조직형성
- ☞ 다른 시민단체등과 구별성 없는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 ☞ 실업전문기관의 역할(지역 네트워크, 정책, 비판기능) 약화



5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태동 과 확대

- 5차 시기 : 2007년~ 2010년
- . 실업극복수원센터 1기 사회적기업 진출
- . 자활 공동체 및 관련 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기업 진출
- . 2010년 22개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
- . 2010년 11월24일 수원 사회적기업 협의회 출범
- .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및 생협의 지역동아리 확대
- . 2010년 마을기업 1개소 시험운영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태동과 확대



6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2. 2010 지방선거와 수원시 정책의 변화

#### ▣ 시민단체 지지 시장 후보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설립 정책공조

- 6차 시기 : 2010년~ 2013년 (지자체 주도성강화)

- . 2010 08 30 사회적 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 . 2010 09 08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 . 2010 11 17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제정
- . 2010 11 24 사회적 기업 협의회 출범식
- . 2011 ~ 아카데미, 경진대회 등 육성사업 추진
- . 2011 09 09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개소



7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민간역량(리더십) 강화사업

- 7차 시기 : 2010년~ 2012년 (지원센터 주도성 강화)

- . 2011 09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개소
- . 2011 10 사회적 기업 전원 대표자회의 / 업종별 대표선출  
수사협 운영위 구성 / 매월 정기회의
- . 2011 12 사회적 기업 대표 및 간부 워크숍 : 60여명
- . 2011 12 수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토론회
- . 2012 03 수원 사회적 경제 협의회(준) 출범

8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3. 거버넌스 조직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 거버넌스 조직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 . 2012 06 수원 사회적 경제 한마당 : 54개 업체 1000여명 참여  
수원 사회적경제 협의회 출범식 (수사협, 자활협, 협동조합네트워크, 마을기업협의체, 도시생태농업, 수원사회적경제실천네트워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르네상스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제21, 자원봉사종합센터)
- . 2012 09 수원 사회적 경제 토크콘서트 : 460명
- . 2012 11 회원사 보호 및 민의 독자성 강화
- . 2012 11 수원 사회적 경제 포럼
- . 2012 12 사회적 기업 대표 및 간부 워크숍 : 100여명



9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 4.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성(협동조합)과 독자성 강화

##### ▣ 수원 사회적 경제협의회의 역량강화에 따른 민중심성 강화

- 8차 시기 : 2013~ (수경협 주도성 강화)
- . 2013 05 현재 : 협동조합 30개
- . 2013 05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 사회적기업 7, 자활기업4
- . 2013 05 수원 사회적 경제 한마당 57개 업체 3000여명 참여
- . 2013 06 위캔두뎃 영화상영 : 2회 373명 관람  
공동체영화상영추진위원회 : 11개 단체
- . 2013 07 수원시 사회적 경제인의 날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념식

10

### 수원지역의 사회적 경제 현황

종류	업체 수	인원	매출
사회적 기업 (총62개)	62개(인증15, 예비39, 부처3, 등록5)	706명	215억
협동조합(총30개) (생활6개, 의료2개 일반18, 사회적4개)	2012년 7개(생협6, 의료1) 11개매장, 76개마을모임	1만4천여 세대	174억
	2013년 17개설립 1월 3개, 2월 5개 3월 3개, 4월 6개, 5월4 개	설립동의자수 320명	
	사회적 협동조합 4개 기재부1, 교육부2개, 중기청1개	설립동의자수 33명명	
마을기업 총 9개	2012년 6개	35명 (파트타임 25명)	3억원
	2013년 3개		
자활공동체 총36개	3개(공동체 18개사업단 18개)	300여명	9억원
	137개	14,000세대 종사자, 약 1000명	약 400억원

11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 ▣ 사회적 경제는 국가나 시장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조직이다.
- ▣ 따라서 국가나 시장의 지배 간섭이 아닌 공동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 ▣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 ▣ 당사자 조직 스스로 조직의 체계를 세우고 힘을 키워야 한다.
- ▣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대를 추동해갈 '말이'를 함께 세워야 한다.
- ▣ 사회운동은 자연운동과 달리 사회운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추동 된다.
- ▣ 그러나 사회적 경제운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활동가는 필요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
- ▣ 중간 지원단체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화 전략 사업에 보다 힘을 내야 한다.

12

지역사례발표 2 : 충남

##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박찬무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SE(주)즐거운밥상 대표)

### I. 충남사회적경제 관련정책 현황

#### 1. 마을기업 관련 수행부서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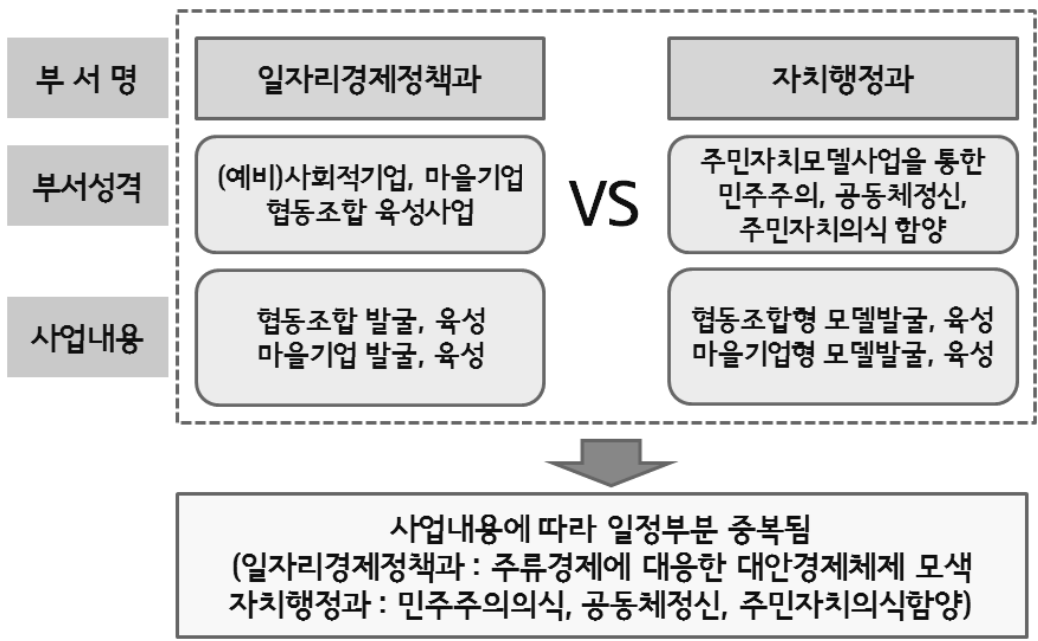
#### 2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사업 수행부서와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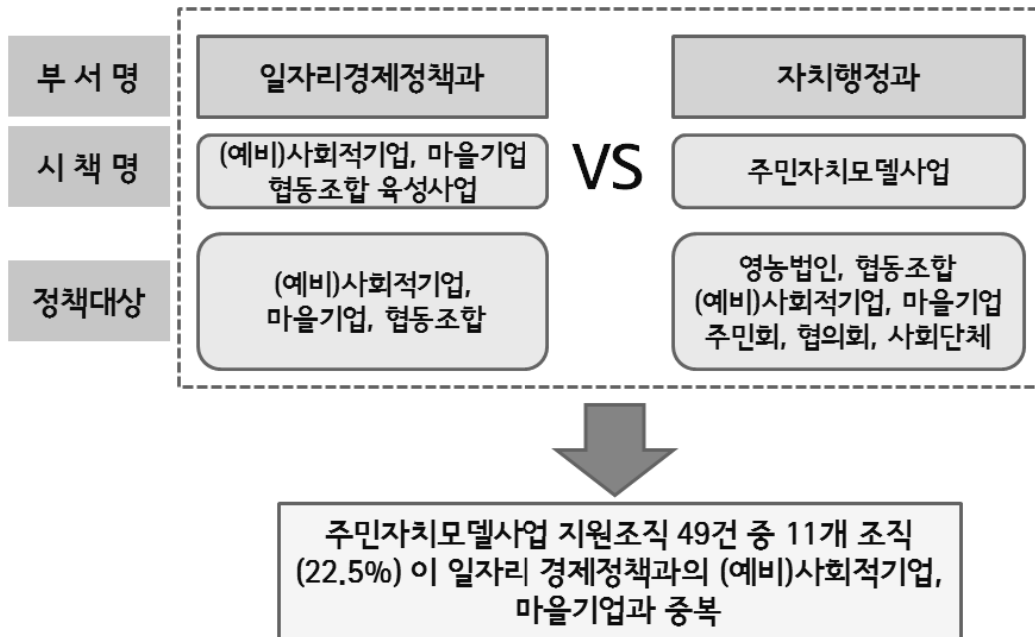
- 도청내 다양한 부서/산하기관에서 마을기업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이는 해당부서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회적경제교육 역시 해당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 사업목적, 운영방식, 분야(특히, 농업)별로 일정부분 중복됨

## II.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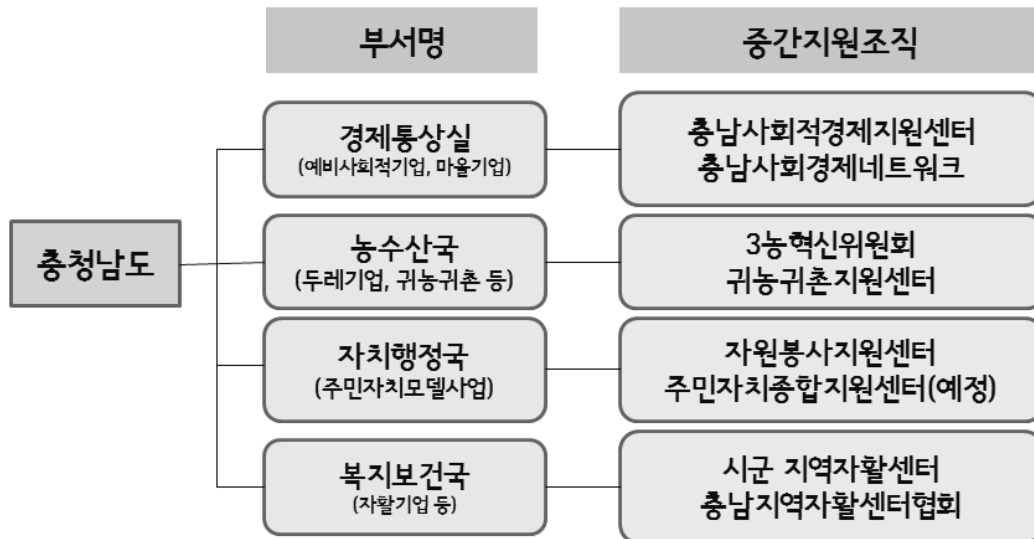
### 1. 부서성격에 부합하는 차별성 측면



## 2. 정책대상의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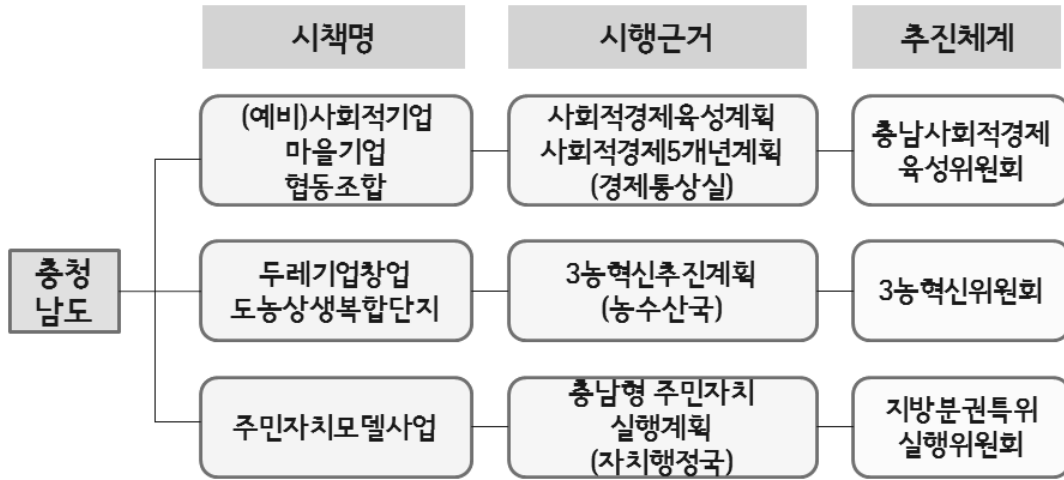


## 3. 중간지원조직의 분산운영





4. 사업의 계획, 실천, 평가과정의 협력체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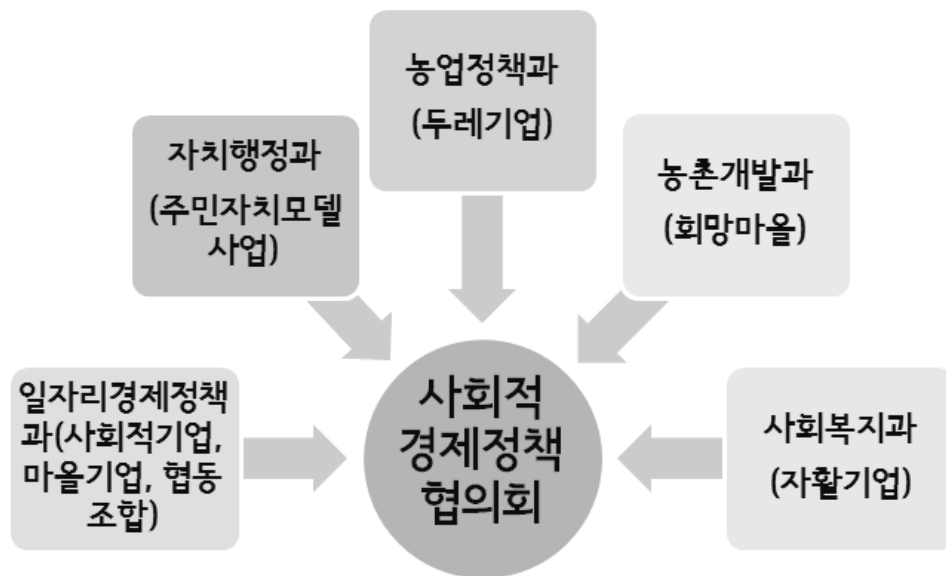


- 복수의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정책대상의 중복으로 현재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청내 여러부서 사업의 정책대상에 해당됨
  - 새로운 정책대상을 발굴하지 않는 한 한정된 정책대상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사회적경제 시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부서별 분산 설립되어 있음
- 사업의 시행근거와 추진체계가 상이하고, 계획-실천-평가과정에 부서간 유기적 협력이 부족함
- ▶ 유사한 사업 수행으로 내용이 일정부분 중복되는 측면과 여러사업이 한정된 정책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분산 설립 및 사업수행 주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함

### Ⅲ.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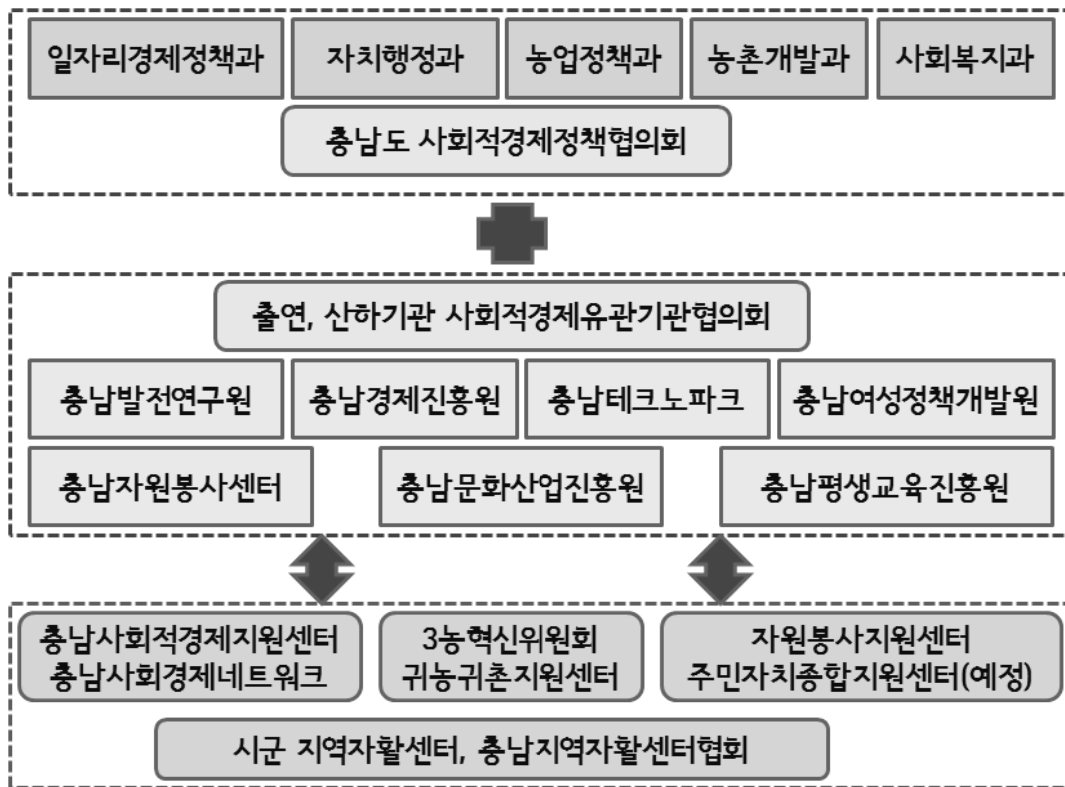
#### 1. 사회적경제 관련업무의 기능적 연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 유사한 사업을 복수의 부서에서 담당함에 따라 사업 내용의 중복성 및 사전조정을 위해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함
  - 해당부서 관련 사업 담당으로 구성
  - 사업내용 공유, 사업대상 선정평가시 상호참가, 낭비요인 제거
  -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에 충남발전연구원 등 출연기관 담당자의 참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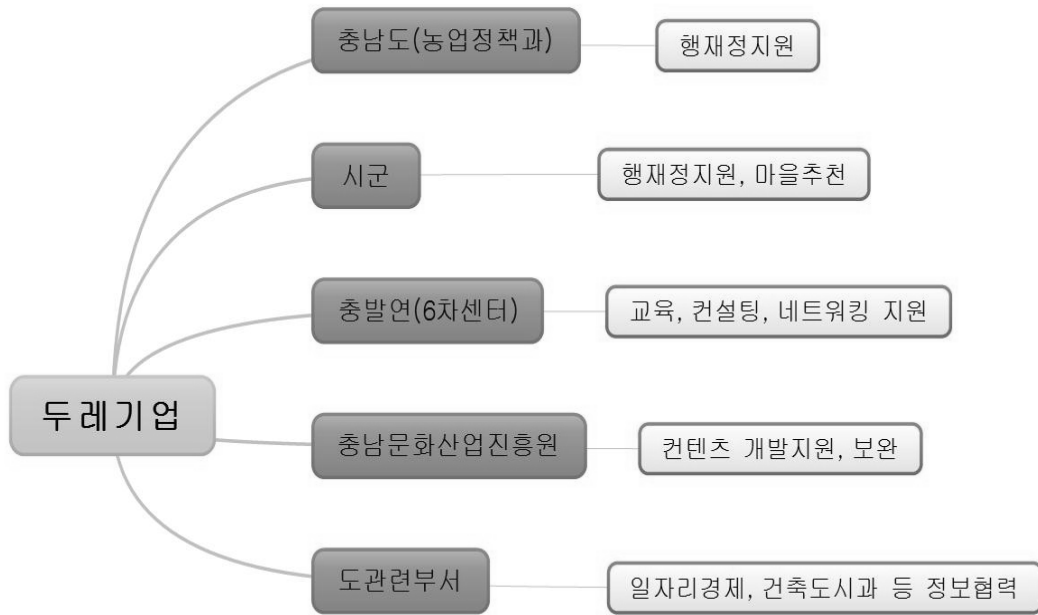
#### 2. 출연·산하기관,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연계

- 충남도 출연 및 산하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자원봉사센터 등이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도청내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와 협력 및 연계
  - 도청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와 출연 및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유관기관협의회의 공동 업무협약, 정기모임, 공동워크숍 등 정기 추진
  - 관련 분야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성 강화



### 3. 융복합추진모델을 만들어 관련주체들이 공동참여

- 충남도와 시군의 관련부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중간지원기관, 담당 위원회 등의 미션을 분명히 제시하고, 주체간 융복합적 추진 로드맵 제시
  - 충청남도 : 사행수행의 주체, 행·재정적 지원
  - 시군 : 사업대상 발굴, 행·재정적 지원
  - 산하기관 : 사업내용에 대한 연구, 조사, 콘텐츠 개발, 컨설팅
  - 도관련부서 : 해당부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협력
  - (예시)두레기업 육성 사례



〈주체별 역할〉

- 도·시·군 : 행·재정적 지원, 마을차원의 참여 유도
- 충발연 6차산업화센터 :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콘텐츠 개발 지원 및 보완
- 道 관련부서 융복합 추진(일자리경제정책과, 건축도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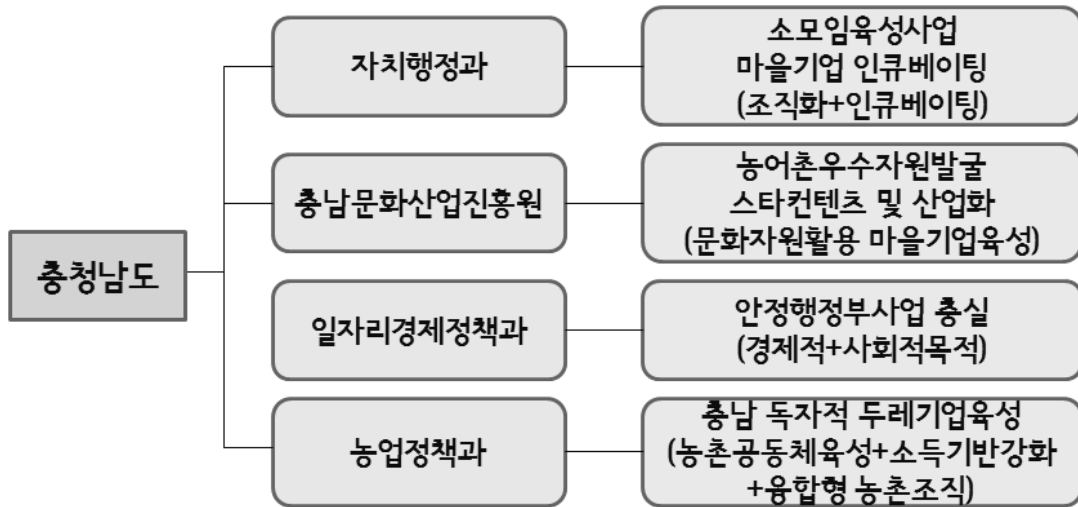
4. 개별사업별 연계 추진방안

1) 마을기업 관련사업

○ 부서별로 역할 및 기능을 조정(차별성 부각)하여 마을기업을 단계별로 육성

(예시)

- 자치행정과 :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모임 육성사업에 초점을 두고 추진(조직화+인큐베이팅)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농어촌의 우수 향토문화자원 활용하여 스타 콘텐츠화와 산업화 추진하여 마을기업으로 육성(문화자원활용 + 산업화)
- 일자리경제정책과 :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조직으로서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경제적+사회적 목적)
- 농업정책과 : 충남도 독자적 두레기업육성(농촌공동체육성 + 소득기반강화 + 융합형 조직)



## 2)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사업

○ 부서별로 역할을 조정하여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예시)

-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의식함양, 공동체의식 제고, 주민자치의식 고양 등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개설.
- 일자리경제정책과 : 주민자치아카데미 등 기초교육을 이수한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교육 추진

○ 부서 개설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포함. 또한 각 부서 핵심 사업 내용을 상호 교육프로그램에 반영

(예시)

- 자치행정과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교과목 포함 편성
- 교육정보과 : 3농혁신대학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기포함) 등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편성

○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군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교실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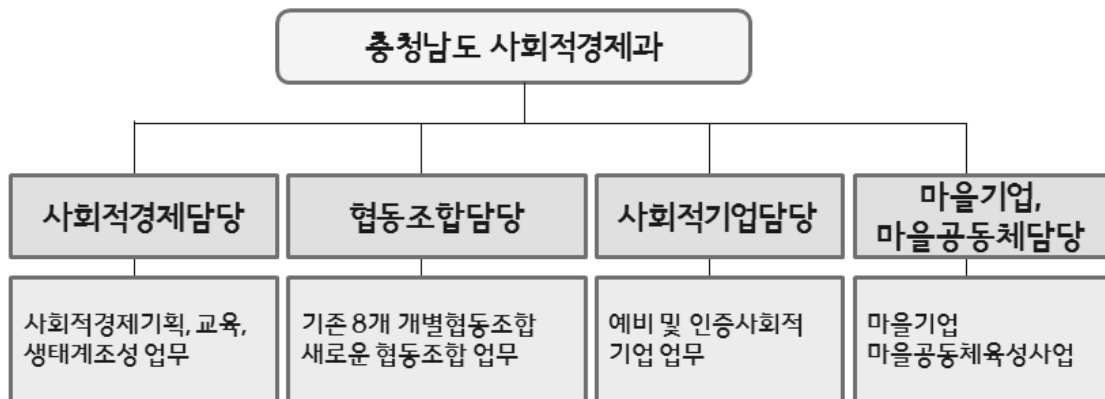
- 시군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실 개설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과 사전 조율

○ 시·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활용

-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등 시·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 5. 사회적경제과 신설

-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예정)에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 하여 운영중
- 충남도 역시 현재의 계단위로는 사회적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도청 조직내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 운영  
(예시)
  - 사회적경제기획담당(충남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기획조정)
  - 협동조합담당(기존8개 개별협동조합 + 새로운 협동조합업무)
  - 사회적기업담당(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담당(안정행정부의 마을기업+마을공동체육성사업)
- 충남도 사회적경제과(안)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

**참가자 등록 양식**

**분임토론 양식**

**워크숍 평가설문 양식**





**참가자 등록 양식**

안녕하십니까?

(재)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지역활동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사항은 본 워크숍 분임토론시 주제로 선정될 것이며, 지역의 고민을 듣고 해결을 위한 재단과 지역의 협력방안 논의에 앞선 사전질문입니다.

본 워크숍은 협동사회경제를 위해 지역과 재단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과정으로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워크숍의 결과는 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에서 취합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할 예정이며, 함께일하는재단의 협동사회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협동사회경제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의 염원과 필요를 듣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워크숍 참가자 인적사항>**

○신청자:

○휴대폰:

○이메일:

○성별: 남  여

○연령: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워크숍 일정 내(수유 아카데미) 숙박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오

○워크숍 일정 내(7월 4일 ~ 5일) 식사 신청: 7/4 석식  7/5 조식  7/6 중식

**<워크숍 참가자 활동상황>**

○소속기관명:

○근무경력(사회적경제분야):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활동형태: 사회적기업  자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사·공무원   
지원조직  기타  ( )

○사업업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 )

○활동영역: 교육  사회복지  환경·에너지  문화·예술·관광 등   
보건·건강  보건의료  지역개발  기타  ( )

○주요활동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협동사회경제 이해정도>**

1. 현재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사회경제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활동가들 및 지자체의 인식정도, 관련정책 집행정도, 사회환경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

매우낮다      매우높다

2. 현재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사회경제의 필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다      매우높다

3. 협동사회경제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안이 될 수 없다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협동사회경제 활동의 이슈>**

1. 지역사회에서 협동사회경제 활동(사업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분임토론 양식**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분임토론**

- 토론주제: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 진행방법:
  - 토론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전질문 내용을 대상으로 각 분임조별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하고 정리
  - 17:50 ~ 19:00(70분) 동안 조별 회의공간에서 자율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사회경제시대에 지역의 준비정도</li> <li>·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li> <li>· 지역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 및 재단의 역할</li> <li>·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재단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제안</li> </ul>
---

- 종합토론:
  - 조별 분임토론 내용이 정리되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정리하고 각 조의 대표가 발표 (분임토론 결과는 network@hamkke.org로 송부바랍니다.)

조	지역	일시
조장	조원	
토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사회경제시대에 지역의 준비정도</li> <li>·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li> <li>· 지역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 및 재단의 역할</li> <li>·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재단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제안</li> </ul>	

※ 참고: 사전질문 분석결과

**워크숍 평가설문 양식**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모색」  
워크숍 평가설문지(2013. 07. 04 ~ 05)**

2013년 (재)함께일하는재단 지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더 알찬 워크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워크숍 진행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별: 남  여                       ·연령: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 활동형태: 사회적기업  자활  협동조합  공사공무원  지원조직   
지역사회경제조직  기타  (                      )

※ 다음은 워크숍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초청강연, 지역사례발표, 분임토론 등) 입니다.

구분	주제	진행(강사)
초청강연	지역을 살리는 협동사회경제의 나가야 할 길	김기섭 대표
지역사례발표	수원, 충남 지역사례발표	이상호, 박찬무
분임토론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활성화 방안 모색	각 분임조 조장

**1.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 1)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초청강연  지역사례발표  분임토론
- 2) 각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	⑤매우불만	
초청 강연	강의내용	①	②	③	④	⑤
	강사	①	②	③	④	⑤
	이해정도	①	②	③	④	⑤
지역 사례발표	주제선정	①	②	③	④	⑤
	실무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이해정도	①	②	③	④	⑤
분임 토론	토론주제	①	②	③	④	⑤
	참여도	①	②	③	④	⑤
	이해정도	①	②	③	④	⑤

2. 이번 워크숍의 일정, 시간, 장소, 식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	⑤매우불만
일정(7/4~5)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별 시간배분	①	②	③	④	⑤
장소선정(교통)	①	②	③	④	⑤
숙박 및 식사	①	②	③	④	⑤

3. 앞으로 워크숍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워크숍 진행에서 부족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

## 사전질문 분석결과

분임토론용





사전질문 분석결과  
자료 별첨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